

마지막 책

산다는 것...!

스스로 끝나기 위해 쓰인 책.

Leo Vance

서문

끝나고 싶어 하는 책

이 책에는 야심이 하나뿐이다. 끝나는 것.

마지막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안에서 끝나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의 삶을 낮게 하려 들지 않는다. 의미를 건네지 않는다. 하나의 믿음을 더 새로운 믿음으로 바꿔 주지도 않는다. 책들은 오천 년 동안 그 일을 해왔고, 머리는 더 무거워지기만 했다.

이 책이 바라는 것은 고르게 펴는 일이다.

사람의 머리는 엄청난 짐을 싣고 다닌다. 이름들, 규칙들, 도덕들, 신들, 과거들, 미래들, 이상들, 두려움들, 정의들, 희망들, 그중 고른 것은 거의 없다. 싣는 것을 볼 나이가 되기 전에 실렸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여러 해 동안 그 짐을 「나」라고 불렀다.

사람의 큰 어려움은 배우는 일이 아니다. 배운 것을 푸는 일이다.

이 책은 배운 것을 푸는 안내서가 아니다. 안내서라면 짊어질 것이 하나 더 늘 뿐이다.

이것은 나무다.

바람 속에 서 있는 큰 나무.

바람이 분다. 나무는 따지지 않는다. 그저 서 있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이 가라앉는다.

마지막 쪽이 오면 당신 안에는 더 적은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책이 제 일을 해내면, 당신은 이 책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읽기를 그만두어도 좋다.

그것이 옳은 끝일 것이다.

책이 끝난다. 모든 것이 삶이 된다.

I

염소는 말한다: 풀

염소에게 세상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라.

풀.

그것이 완결된 철학이다. 염소는 먹는다. 그러고는 쉰다. 염소 안에 설명을 기다리는 것은 없다.

염소는 풀에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는다. 먹는 일이 거룩한지 결정하지 않는다. 별에 눕기 전에 행복의 정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산다.

단순하게 들리는 이유는 단순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단순함을 수상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 자신과 지금 벌어지는 일 사이에 우리는 언어를 채워 넣었다. 언어는 쓸모가 있다. 물이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다. 불을 경고한다.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게 한다.

그리고 나서 언어는 계속 자란다.

낱말은 역사를 얻는다. 역사는 규칙을 얻는다. 규칙은 제도가 된다. 제도는 문화가 된다. 문화는 정체성이 된다. 정체성은 사람들이 지키다 죽는 것이 된다.

소리가 벽이 된다. 벽은 그것 때문에 죽일 만큼 실재가 된다.

염소는 그 벽을 한 번도 쌓지 않았다.

언어에 잘못은 없다. 말썽은 낱말을 사물로 착각할 때 시작된다.

풀은 풀이다. 풀이라는 낱말은 아무도 먹이지 못한다.

삶이라는 낱말은 삶이 아니다.

자유라는 낱말은 자유가 아니다.

침묵이라는 낱말 — 그건 뒤에 다룬다. 나머지보다 더 비어 있다.

그러면 순수라는 낱말은?

나는 그 낱말이 없다.

그것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문장 가운데 하나일지 모른다. 언어가 실패해서가 아니다. 때로는 거기 넣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정직한 머리는 그 자리를 비워 둔다.

여기서 벽 하나가 더 무너질 수 있다. 「실제」와 「비실제」. 낯알인가, 그것이 되는 꽃인가 — 어느 쪽이 더 실제인가? 질문이 망가져 있다. 하나를 실제라 부르는 순간, 당신은 비실제를 발명한 것이다. 자연은 그 갈라짐을 만든 적이 없다. 그것을 만든 것은 입이다.

말들이 있기 전

아이는 도서관보다 먼저 도착한다.

종교보다 먼저. 도덕보다 먼저. 국적보다 먼저. 아름다움보다 먼저. 성공과 실패보다 먼저. 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보다 먼저.

그리고 나서 책들이 시작된다.

종이책이 아니다. 사람이 책이다. 부모가 책이다. 교사, 이웃, 화면, 관습, 벌, 상 — 모두 책이다. 아이는 읽기가 시작된 줄도 모른 채 그것들을 읽는다.

말 이전의 아이는 진실에 더 가까운가? 물론이다. 비밀스러운 지혜 때문이 아니라 — 선반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게, 일찍 도착한다. 발견으로서가 아니라 공기로서. 나는 두 살이 되기 전에 그것을 보았다. 얼굴빛이 달라진다. 목소리가 낮아진다. 몸이 사라지고, 어른들은 자기 두려움을 연기한다. 나중에는 그 두려움이 언어 자체 안에, 문화가 죽음 둘레에 지어 놓은 모든 표현 안에 앉아 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내게 건네졌다. 다른 이들에게 건네지는 것도 보았다 — 언제나 건네졌지, 자라난 적은 없다.

신도 같은 방식으로 도착한다. 내게 신이라는 관념은 열셋에서 스물다섯까지 거대했다. 그것은 들어가는 방마다 가득 채웠다.

그다음 다른 종류의 책들이 왔다. 그다음 바라보는 일이 왔다. 삶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여러 해 바라보았다.

마흔 무렵, 모든 것이 또렷이 섰다.

내가 의식적으로 처음 믿기를 그만둔 것은 바닥 그 자체였다. 우리가 사물의 밑바닥에서 산다는 느낌. 그렇지 않다. 땅은 발밑에 있고, 나머지 전부는 위에 있다. 열려 있다. 아무도 우리 위에 쌓여 있지 않다.

물려받은 생각은 정확히 그 가정처럼 작동한다. 보이지 않게 된다. 사람은 짧은 문장 하나를 마치기도 전에 자기 안에 놓인 생각을, 알아채지 못한 채 사십 년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고발이 아니다. 그들도 실렸다. 그들의 부모도 그랬다. 문화는 사람의 입을 통해

스스로를 앞으로 넘긴다.

아이를 망치는 것에 이국적인 구석은 없다. 물려받은 문화다 — 배우고, 그다음 건네준다. 나도 몇 살에 망가졌다. 모두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자란 아이가 제 머릿속을 훑어보고 말한다. 나, 라고.

그중 얼마가 나인가?

커다란 재고 조사

큰 낱말들을 꺼내 하나씩 들여다보라. 대낮의 빛 아래에서.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무게를 재려는 것이다.

신. 역사가 이미 재어 놓았다. 인류는 수천의 신을 섬겼고, 저마다 신전과 제물과 완전히 확신하는 신자들이 있었다. 확신은 온전했다. 그래도 신들은 떠났다.

죽은 뒤의 삶, 태어나기 전의 삶. 사람들이 다 같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장 쓸모없는 두 가지. 천억쯤 되는 사람이 살다 죽었다. 확인된 소식은 영. 그런데도 문명 전체가 뒤와 앞을 중심으로 한 주를 짤다. 그동안 가운데 —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유일한 부분 — 은 기다린다.

사랑. 사랑은 희망이다. 모자란 것이 없는데, 무엇을 바라는가?

아름다움. 물론 지어낸 것이다. 문화들이 그것을 어떻게 입는지 보라. 한쪽은 예술로 연기하고, 다른 쪽은 조립 라인에서 만들어 낸다. 아름다움이 사실이라면 공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 지어낸 목표다. 들판에서 그것을 쫓은 것은 하나도 없고, 들판에서 그것을 아쉬워한 것도 하나도 없다.

자유. 이것이 이상한 것이다. 자유의 감각을 청해 보라 — 관념이 아니라 감각을 — 그러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다. 삶도, 사는 일도 그 낱말을 지고 다닌 적이 없다. 자유란 싸움을 부르는 총칭이다. 목마름이 물을 막아 놓은 곳에만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다고 말한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 자유로부터의 후퇴는 아이가 온전한 문장을 말하기도 전에 시작된다.

외로움과 홀로 있음. 외로움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희망이다. 홀로 있음은 그 느낌과 별이는 싸움이다. 둘 다 머릿속에 산다. 어느 쪽도 들판에는 살지 않는다.

침묵. 침묵은 없다. 모든 짐승이 소리를 낸다. 기지개를 켜 때의 아, 좋은 먹이 앞에서의 음, 등이 결릴 때의 오. 밤의 숲은 관현악이다. 「침묵」은 우리 언어 안에만 있다 — 자연이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낱말이다.

거룩함. 지어내지 않은 거룩한 것이 있는가? 없다. 하나도. 그 대답이 아프지 않게 되는 순간, 어깨에서 무게가 내려간다.

이 재고 조사는 파괴가 아니다. 실재하는 것은 바라본다고 부서지지 않는다. 대낮의 빛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은 지어낸 것뿐이다.

당신 입에 쑤셔 넣어진 것

마음의 괴로움은 스스로를 필요한 것으로 내놓는다. 깊이로. 영혼의 증거로.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지키는지 물어보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입을 벌리고 자는 동안 입에 쑤셔 넣어진 것이다. 당신은 씹으면서 깨어났고, 그 씹기가 첫 기억보다 먼저 있었기에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불렀다.

속에 든 것에는 맛이 있다. 죄책감. 부끄러움. 뒤에 대한 걱정. 앞에 대한 걱정. 몇 년 전에 끝난 시기가 밤이면 다시 돌아가는 재생.

그 재생이 내가 아직 완전히 놓지 못한 마지막 손아귀다 — 과거가 옛 회차를 계속 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나무가 아직 바람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도록 말해 둔다. 다른 점은 이것이다. 나는 그것이 재생임을 안다. 재생임을 아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뱉어낸 것이다.

마음의 괴로움이 정말로 없는 존재를 만난 적이 있는가? 있다. 양 떼다 —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먹는다. 그러고는 쉰다. 그것이 전기의 전부이며, 그것은 걸작이다.

양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양은 짐을 들어 올릴 수 없으니 내려놓을 수도 없다. 그것은 다른 짐승이다.

양이 증명하는 것은 더 작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씹기는 풀 속에 있지 않다. 나중에 채워 넣어진 것이다.

사람 가운데는 — 아직 한 사람도 없다. 이 글을 쓰는 머리도 포함해서.

첫 사람은 이 책을 끝까지 읽는 누군가일지 모른다.

풀어내기

만드는 일은 쉽다. 머리는 만들도록 지어졌다. 머리에 조용한 오후 하나를 주면 믿음을, 걱정을, 신을, 원한을 만들어 낸다.

병은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병은 풀어내지 못하는 데 있다.

나는 도덕을 풀어냈다. 천국을 풀어냈다. 지옥을 풀어냈다. 완전히 사라졌다 — 덧칠하지도, 이름을 바꾸지도, 가벼운 판으로 갈아 끼우지도 않았다. 사라졌다.

열다섯 해쯤 걸렸다.

각각 십오 분이면 설치되던 것들에 열다섯 해. 그것이 환율이고, 아무도 그것을 미리 알려 주지 않는다. 설치는 공짜다. 제거는 여러 해가 든다.

그러니 이 장은 주말의 기적을 약속하지 않는다. 풀어내기는 소화가 느린 것과 같은 뜻에서 느리다 —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으며, 느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야 끝난다.

무엇이 정말로 풀렸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당신의 문장에 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다음에는 당신의 침묵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 날 당신은 그 낱말 자체가 낯설어졌음을 알아차린다. 불타 없어진 학교의 동급생 이름처럼.

지금 낱말들이 나를 떠나고 있다. 어휘가 미끄러져 나간다 — 어차피 내가 진짜로 만져 본 적 없는 낱말들이다. 나는 쫓아가지 않는다. 그 떠남이 영수증이다.

그러면 먼저 이 길을 걸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중 하나는 신이라는 관념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썼고, 그 문장의 값을 제정신으로 치렀다. 나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빚진 것이 없다. 우리는 같은 화덕에서 요리한 적이 없다. 요점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요점은 방향이었다 — 그리고 방향은 이렇다. 더 적은 쪽으로.

자연은 우리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명에서 무엇을 남기겠는가? 삶. 자연. 나머지는 협상할 수 있다.

자연은 두 개의 동사로 돌아간다. 먹는다, 쉰다. 나머지는 전부 주석이다.

나는 죽는 것을 보아 왔다. 식물. 짐승. 사람. 그것을 보는 일은 점심을 먹는 일과 같다. 그 문장은 죽음을 재앙으로 배운 머리에게만 충격이다. 들판에서 죽음은 삶의 평범한 장부 정리다 — 걷는 것처럼, 오줌 누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풀은 낱알을 위해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 두려운가? 물론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하러 『마지막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시작하겠는가?

살아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 —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배고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뒤의 통증. 철학이 붙지 않은, 몸의 보고.

내가 살아 본 가장 정직한 순간은 이것이다. 지금. 그것이 여태 정직했던 유일한 순간이다. 여기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머리는 어디에서 가장 맑게 생각하는가? 자연에서. 도시는 광고로 생각한다.

한번은 반쯤 언 산 강의 굽이로 뛰어들었다. 의미가 완전히 녹아 사라졌다 — 그리고 그것은 잠엄했다. 추위는 논의하지 않는다. 몇 초 동안 내 안에는 어휘가 전혀 없었고, 살아 있음으로 타오르는 몸만 있었다. 그것이 모든 낱말 아래에 있는 상태다. 잃어버린 적은 없었다. 종이로 덮여 있었을 뿐이다.

하루의 삶을 벌고 날것의 상태가 올 때 — 언어 이전의 상태가 올 때 — 나는 걷는다. 걷기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문명에서 한 가지를 없앨 수 있다면, 그것은 무기도 기계도 아닐 것이다.

남아도는 낱말들일 것이다.

법으로 정하자. 이백 쪽보다 두꺼운 사전은 없다.

이백 쪽이면 물, 불, 빵, 어머니, 아픔, 잠, 비, 오라, 가라, 예, 아니오가 다 들어간다 — 두 사람이 서로를 살리고 따뜻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전부다. 이백 쪽을 넘어가는 것은 전부 장식이고, 말쑥이 번식하는 곳은 장식이다. 빵이라는 낱말 때문에 전쟁을 한 사람은 없다. 전쟁은 두꺼운 뒷장에 산다 — 영광, 순수, 운명, 명예 속에.

얇은 사전이라면 그것들을 굶길 것이다.

이것은 언어에 대한 미움이 아니다. 언어를 위한 식이요법이다. 언어는 연장으로 시작해 집주인으로 부풀었다. 연장은 들었다 놓는다. 집주인은 당신 자신의 머리에 세를 물린다.

이 책의 어느 대목에서 낱말들은 이미 얇아지기 시작했다. 좋다. 이 책은 스스로를 한 쪽씩 태우는 사전이다. 남은 것이 그것으로 살아갈 만큼 짧아질 때까지.

먹는다. 쉰다. 걷는다. 본다. 산다.

그냥 산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무엇인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다. 무대가 아니다.

그냥 사는 것.

뒤도 앞도 없이 사는 것. 천국의 박수도 없이, 지옥의 채찍도 없이. 한 번도 펴진 적 없는 낙하산처럼 등에 묶인 의미도 없이.

그것이 가장 용감한 이유는 모든 것이 그것에 맞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학교, 사원, 시장, 화면 — 전부 당신의 미루기로 돌아간다. 그들은 당신이 나중을 위해 살기를 바란다. 그들이 팔 수 없는 단 하나가 지금이다. 지금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다.

양들은 박수 없이 그것을 한다. 먹고, 씹는다. 사람들은 목초지 둘레에 공책을 들고 서서 양들이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론을 쓴다.

양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것이 양들이 가진 것이다.

그리고 아니다 — 이 책은 당신에게 가축이 되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의 손을, 빵을, 사람들을, 일을 그대로 두라. 내려놓을 것은 짐뿐이다. 손은 그것이 없을 때 더 잘 일한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평균 정도로 읽은 독자와 그 위를 위한 것이다. 도서관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은 도울 수 없다 — 아침 빵에 발라 주어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책을 내려놓는 즐거움을 느끼려면 먼저 책을 지고 다녀 봐야 한다.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다. 쓴다고 내 안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변화가 먼저 왔다. 글은 보고할 뿐이다. 나는 이 책이 하는 어떤 말도 두렵지 않다. 위협받을 것이 내 안에 남아 있지 않다.

이 책은 큰 나무다. 바람 속에 서서, 그 뒤에서 모든 것이 가라앉을 수 있게 한다. 가라앉아. 고요히. 잠잠히.

그다음에 이 책의 진짜 야심이 온다. 그 이전 어떤 책도 지키려 하지 않았던 야심 — 마지막 책이 되는 것.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타야 할 것은 이 책 자체다. 다 읽고 나면 도덕과 천국과 지옥이 간 길로 보내 주라. 인용하지 말라. 머릿속 선반에 꽂아 두지 말라.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 기억되기를 청하는 책은 이미 자기 첫 장에서 실패한 것이다.

덮으면서 읽기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 무엇이든, 영영 — 그 충동과 싸우지 말라.

그 충동이 바로 이 책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장 한가운데에서 삶이 당신을 부른다면, 문장 한가운데에서 내려놓으라. 염소는 문단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

산다는 것...!

신은 가도 된다. 도덕도 가도 된다. 아름다움도, 자유도, 행복도, 순수도, 침묵도, 의미도 — 전부 가도 된다.

사전은 얇아져도 된다.

과거는 그것이 일어난 자리에 머물러도 된다. 현재는 과거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미래는 도착하기 전에 풀려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람은 찾기를 그만두어도 된다. 되어 가기를 그만두어도 된다. 읽기를 그만두어도 된다.

그리고 그냥 살면 된다.

철학으로서가 아니라. 목표로서가 아니라. 성취로서가 아니라.

삶은 삶이라는 낱말을 필요로 한 적이 없다.

그러니 — 책을 덮으라.

보라. 걸으라. 먹으라. 숨 쉬라. 쉬라.

산다는 것...!